

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후서

메시지 14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

성경: 요 1:16-17, 고전 15:10, 고후 1:12, 12:7-9, 13:14, 롬 5:17, 21

- I. 새언약의 사역자들의 생활은 은혜의 생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 A. 고린도전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신약의 믿는 이들의 예표로 삼지만(고전 5:7-8, 10:1-13), 고린도전서에는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좋은 땅의 실재는 고린도후서에 있기 때문이다.
  - B. 고린도후서에 있는 좋은 땅의 실재는 신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후서의 중심 사상이자 주제이다 — 고후 13:14, 1:12, 4:15, 6:1, 8:1, 9, 9:8, 14, 12:9.
  - C.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의 “내가 아니라 ...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의 “더 이상 내가 ... 아니라 ...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사도 바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안에서 운행했던 은혜는 어떤 사물이나 일이 아닌 살아 계신 인격(요 1:16-17),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골 2:9, 요 14:7-11)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 고후 3:17)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는 누림이 되시기 위해 바울 안에 거하신 분이였다(딤후 4:22, 2:1).
- II. 은혜는 세 방면,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분의 존재,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 — 갈 6:18, 빌 4:23, 몬 25.
- A. 은혜는 그 존재에 있어서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 요 1:14, 17, 8:58, 롬 5:17, 21, 고전 15:10, 비고 갈 2:20.
  - B.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갖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분배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 딤후 1:14.
    - 1. 우리에게 어떤 부족이 있다면 이러한 부족은 우리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공급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때맞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 히 4:16, 롬 5:17, 고후 12:7-9, 벰전 5:5.
    - 2.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그 때가 바로 은혜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누릴 때이다 — 아 8:5-6, 히 11:21, 창 47:29, 31.
  - C. 은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이다.
    - 1. 은혜는 우리의 집을 지는 분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게 집이 많을수록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가 더 많다 — 고후 12:7-9, 고전 15:10, 58, 빌 4:6-7.
    - 2.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벰전 4:10, 엠 3:2, 4:29), 곧 교사들(딤후 2:2), 군인들(딤후 2:3-4), 경기자들(딤후 2:5), 농부들(딤후 2:6), 일꾼들(딤후 2:15), 귀한 그릇들(딤후 2:21)이 되어야 한다.
- III.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계속 이 은혜를,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 요 1:16, 고전 15:10, 고후 12:9, 롬 5:17, 21.

- A.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헬라이어, 오이코노미아)”이다 — 엡 3:2, 눅 11:11-13, 요 4:10, 7:37-38, 갈 3:2-5, 요 3:34.
- B. 은혜가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서 번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고 넘친다 — 벰전 1:2 하, 벰후 1:2, 요 1:16, 엡 1:6-8, 2:7, 롬 5:17, 21, 딤펢전 1:14, 계 22:21.
- C.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 고후 1:12.
1. 우리가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처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성으로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하는 것이다.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은혜의 영은 거듭나서 삼일 하나님의 거처와 그릇이 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 — 히 10:29 하, 갈 6:18, 빌 4:23, 몬 25, 딤펢후 4:22.
    - a.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즉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누리 교회가 하락하는 내리막의 흐름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야 한다 — 딤펢후 1:6-7, 4:22.
    - b.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한다 — 롬 8:6, 말 2:15-16, 고후 2:13.
- D.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는 능력이 되어 그들이 약할 때 덮어주어 그들을 지탱하고 부축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처가 된다 — 고후 12:9 하.
- E. 우리는 몸 안에서 우리의 움직임과 보호와 동역을 위한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 겔 1:6 하, 9 상, 11, 출 19:4, 사 40:31, 고후 4:7, 1:12, 12:9, 고전 15:10, 시 17:8, 57:1, 63:7, 91:4.
- F.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 히 4:16.
1.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2. 그 비결은 4 장 12 절에서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펢후 4:22).
  3.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벰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시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 G. 우리는 주님 자신이 영광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이심을 보아야 한다(사 22:23, 히 4:16).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릴 때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겔 1:22, 26)로서 우리 속에서 보좌에 앉을 것이다(롬 5:21).
- H.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다. 날마다 기적적인 신성한 전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을 넘치도록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 갈 3:2-5, 요 3:34, 롬 5:17.
- I.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다 — 엡 6:24, 요 21:15-17, 벰전 1:8.
- J.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자신의 생활과 행동과 활동에서 자신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과 인격과 대치물로 취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축하고 지탱하고 강화하고 덮어주고 보호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 고후 12:9, 사 40:31, 겔 1:8, 시 17:8, 57:1, 63:7, 91:4.

- K.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누림(행 20:32, 롬 15:16)으로 그분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야 한다(벧전 4:10-11, 눅 4:22, 엡 4:29, 사 50:4).
  - L. 우리는 우리를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끄는 은혜와 간구의 영을 체험해야 한다 — 슥 12:10.
  - M.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신다 — 벧전 5:5.
    1.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 비교 요 13:3-5.
    2.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헛된 영광을 탐내는 것은 교만의 추악하고 비열한 표현이다 — 갈 5:26.
    3.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멸망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든다 — 약 4:6, 시 138:6, 잠 29:23.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며 우리의 일생과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 벧전 5:5-7, 비교 시 55:22.
    5. 주님은 바울까지도 그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그가 너무 높아질까 하여 그의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게 하셨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로 체험하게 했다 — 고후 12:7-9.
  - N.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진정한 하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 시 133.
  - O.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건축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 행 4:33, 11:23.
- IV.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출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설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시(詩)로서 새 예루살렘이 될 그리스도의 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하나님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들을 극도로 누릴 것이다 — 엡 2:7-10, 계 22:5, 14, 17, 21.